

**안전·안심
민생 구청장**



**1 진짜 일꾼
진교훈**

배포일	2023. 10. 5.(목)	담당	김연주 (010-2027-7211)
-----	-----------------	----	---------------------

첫 집중유세 진교훈 “강서대첩 신화 반드시 기록한다” 당지도부국회의원 총출동 “사전투표 참여로 주권자의 힘 보여달라”

‘안전·안심·민생구청장’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사전투표 하루 전인 5일 오후 6시 발산역에서 첫 집중유세를 갖고 “이번 선거는 원칙이 반칙을, 상식이 몰상식을, 진실이 거짓을, 시민의 힘이 권력을 이기냐의 싸움”이라며 “위대한 강서구민과 함께 ‘강서대첩’의 신화를 반드시 기록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시장에서 만난 상인, 길거리 만나는 구민들께서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야 하고, 반드시 진교훈이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갈수록 많이 해주고 계신다”며 “바로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원칙과 상식, 진실과 시민의 힘이 이기기 위해서 진교훈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익표 “강서구청장선거 승리는 총선 교두보”

진 후보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6년간 민주당 구청장이 이끌어낸 변화보다 10개월간 자신이 한 일이 더 많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마곡신도시와 고도제한 완화의 시작, 강서구청 예산 증가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강서는 민주당 구청장과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노력 속에 계속해서 발전해왔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진 후보는 “강서의 역사를 알고 강서의 새 미래를 열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 진교훈”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지지에 나선 홍익표 원내대표는 “진 후보는 경찰 내에서도 도덕성이 검증되고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후보”라고 말하고, “진 후보의 약속은 곧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안전한 강서, 일자리가 넘치는 강서를 진 후보와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말하고, “강서 선거의 승리 기세를 몰아 오만하고 독선적인 윤석열정부에게 진짜 교훈을 주자”며 “총선 승리의 교두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열정적인 투표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상임선대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강서구민을 넘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옳으냐 그르냐, 정의롭냐 타락했냐 등 모든 면에서 진 후보가 압도한다는 사실을 구민께서 잘 아실 것”이라며 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한정애 의원은 “투표가 돌봄이고, 투표가 민생경제이며, 투표가 일자리다”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진교훈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강서구 만들어가겠다”라는 각오를 피력했다.

진성준 의원은 “진 후보가 김포공항을 강서구의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계획이 착실하게 추진되면 우리 강서구는 국제적 경제관문도시로 확고하게 발돋움하게 된다”며 강서 미래를 위한 투표를 호소했다.

강선우 의원은 “김태우 후보의 강서 집을 좀 찾아달라”며 “5개월 만에 주소를 3차례나 옮긴 후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김 후보는 진 후보가 등촌동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며 진 후보의 강서 개발을 이해충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지역구에 사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지역개발 노력이 다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사람 한사람 손잡고 투표장으로 나가달라”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시장을 돌아다녔는데, 정말 많은 분들 엄지척을 해주시며 꺾속말로 이번에 크게 이겨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고 소개하고, “윤석열 검찰

폭주 독재 기관차를 이곳 강서서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면 좋겠다”며 “진교훈과 함께 진격하자”고 외쳤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선 패배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히고, “19년 동안 강서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경찰에서도 2인자로 민생, 안전, 안심 모두 실천한 정말 좋은 후보인데, 우리만 알면 안 된다”며 “강서구 지인들에게 투표를 호소해달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긴장해야 한다”며 “한 표 한 표 모으지 않으면, 득표율이 높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강조하고, “이곳에서 한 표 한 표 모아야 하고, 또 전화하고 많은 분들께 간절히 말씀드려서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세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지원본부장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강병원·강준현·강훈식·김경만·김민기·김민철·김병욱·김상희·김성환·김수흥·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용민·김주영·김태년·문진석·민병덕·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상혁·박성준·박주민·백혜련·소병철·소병훈·신영대·오기형·오영환·우상호·우원식·위성곤·이소영·이수진(비)·이용빈·이탄희·정일영·조오섭·주철현·진선미·최기상·최혜영·홍기원·허종식·허영 의원, 후원회장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한정애·진성준·강선우 의원이 총출동했으며, 장상기 공동선대위원장 겸 상황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끝.